

혹시 우리 회사도 데이터 호더?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지
5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넘쳐나는 데이터에 둘러 쌓여 계시지 않나요?
무작정 쌓아 놓기만 하면 민첩하게 움직이기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아래의 5가지에 해당된다면,
데이터 호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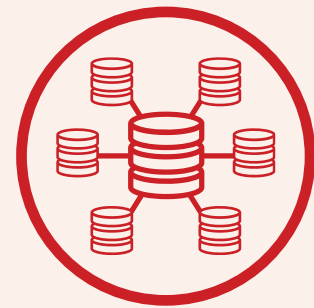
1 “만약을 위해” 모든 것을 저장한다?

모든 데이터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5% 기업 내 데이터는 75%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¹



2 데이터의 분류와 정리가 어렵다?



오디오, 영상, 이미지, 소셜 미디어 스트림,
IoT 센서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는 정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적절한 기술을 조합하여
데이터 카오스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85% 이상의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지
않은 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²

3 필요할 때 데이터를 찾기 힘들다?

데이터 폭증을 억제하지 않으면 스토리지 비용이
치솟게 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책 설정을 통해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비롯해
데이터의 사용, 보호, 보존, 삭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2.5** 시간이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소비되고 있습니다.³



4 스토리지 비용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 파일은 쌓이기 쉽고,
결국 ‘다크 데이터’로 얼룩져 식별, 활용, 보호,
제어가 어렵게 됩니다. 메타데이터와 같은 핵심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적재 적소에 두는 데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4.8% 의 기업이 비용과 예산을 가장 큰 IT
고민사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⁴

5 IT 스토리지 시스템과 담당자,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데이터의 무차별적인 수집은 스트레스를
아기합니다. 기업 데이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든 관계없이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식별 능력을 높여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전환해야 합니다.

업무 시간 중 평균 **8.3%** 이상이 핵심 업무 대신
데이터 품질 향상에 소비되고 있습니다.⁵



혹시 데이터 호더가 될 징후를 발견하셨다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인프라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해답은 차세대 **스토리지 인프라**에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정형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활용하며,
보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EMEA Brighttalk presentation, slide 25.

2. 451 Research, Voice of the Enterprise: Storage, Q1 2016.

3. Gartner from the OBS calculator project.

4. 451 Research, Voice of the Enterprise: Storage, Budgets and Outlook 2016.

5. Gartner from the OBS calculator project.

다음 단계를 위한 참고 자료

Hitachi Content Platform 은 비용 효율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지능형 정책 기반 관리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조직하고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전체 솔루션 보기 >](#)

차세대 스토리지 시스템의 가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메타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비정형 비즈니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리포트 확인하기 >](#)